

물부족 위기 제주, 수도정비로 숨통 틔우나

도, 인구 100만 대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2040년 목표 상수도 시설 확충·수질관리계획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급수인구 100만에 대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공급능력 확충방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 상수도본부는 오는 2040년을 목표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수도법에 의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목표년도는 2040년이다.

기본계획 수립 영역은 도화엔지니어링·제이피엔지니어링·재원엔지니어링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맡고 있다. 용역비는 20억원이며 과업기간은 18개월이다.

제주 실정에 맞는 수도사업 비전 설정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안정화 방안, 수질관리계획, 위기관리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은 수도시설과 수도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상수관로

복선화와 수도시설 비상연계계획, 수돗물의 지역 간 균형적 공급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상수도 공급량의 97% 수준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의 91%가 개발과 이용이 허가되면서 물부족 위기를 겪고 있다.

지하수는 1일 취수허가량 46만 3000t보다 4만7000t을 초과 취수한 51만t이 공급되고 있다. 외도와 강정 등의 용천수는 1일 시설용량 15만 3000t의 70%인 약 10만7000t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뭄 때는 시설용량의 48% 수준인 약 7만5000t까지 감소하기도 한다.

이에 인구증가에 따른 장래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용수 수요량이 하루 66만8000t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수도 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내달 17~18일 쇠소깍 축제

서귀포시 효돈동연합청년회(회장 강두식)는 8월 17~18일 이틀간 '제17회 쇠소깍 축제'를 열어 레저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축제 첫날인 17일 오후 사우스카니발 공연에 이어 18일(오후 6시30분)에는 쇠소깍 가요제가 하호향 내무대에서 열린다.

또 축제기간 쇠소깍에선 태우·나룻배·쇠소깍 열차·제트보트 체험이 진행된다. 축제장 곳곳에선 어린이 사생대회, 딱지왕 선발대회, 여자 팔씨름 대회, 실버댄스, 물수제비 왕선발대회, 전통 해녀복 체험, 드론체험 등도 진행된다. 문미숙기자



제주바다에 '풍덩' 더운 날씨가 이어진 24일 제주시 도두항 인근 한 포구에서 제주 여행 중인 대학생들이 바다에 뛰어들며 여름 무더위를 날리고 있다. 김희만기자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예고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예고 대상은 2017년 7월 17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87건(주거용 45건, 비주거용 42건)이다.

제주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8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으며 이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와 착공신고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9월 중 건축허가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고대모기자

“밭떼기 거래 ‘이것’ 꼭 기억하세요”

도, 표준계약서 유인 보급 계약불이행 등 피해 예방

올해산 감귤을 포함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포진거래 시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유통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진매매 표준계약서를 유인 보급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진거래’

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지만 당해 연도 국내 감귤가격의 등락, 시장유통 처리 상황 등에 의해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제, 농산물의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거래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진매매 표준계약서를 농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매도, 매수 인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농작물(감귤)의 수확 반출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사항도 별도 유인해 비치돼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두계약에 의한 포진거래 표준계약서 작성 시 갑골분쟁과 시비가 발생했던 사례가 상당수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산물 포진 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2019 제주애 빠지다 ③ 사회적협동조합 켈쳐마루

“누구나 편히 찾는 문화공간으로”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켈쳐마루는 2016년 8월 개관한 켈쳐리 카페 ‘거인의정원’으로 시작했다. 거인의정원은 제주지역 청년과 신진작가 그리고 여러 뮤지션에게 예술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소통공간이었다.

홍동인 켈쳐마루 대표는 “어릴 적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거인의정원’을 오픈했는데, 공연·전시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지역 토착민과 정착주민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아트팜’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켈쳐마루가 아트팜 등을 거처며 진행해 왔던 행사들.

예술인 소통공간에서 “주민 문화 격차 줄이자” 사회적 가치에 뜻 모여 협동조합으로 ‘발돋움’ 문화체험 등 사업 넓혀 아라동 이야기도 기록

사회적 가치를 위해 여러 예술가들이 모여 만들어진 아트팜은 지난해 3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육성창업팀으로 선정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아라리 예술장터’가 시발점이 됐다. 이 행사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변화를 맞은 아라동이 화합과 소통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취지로 기획됐다. ‘주민 장터와 어린이 장터’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터를 운영해 성공을 거뒀다. 아라동 내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소비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우리동네가게 행운권’ 추첨도 상인·주민에게 호응을 얻었다.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의 화합·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홍 대표는 “정착주민들은 공연·전시 등의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는데 비해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행사가 아니면 귀

찮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지역내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을 찾아 행사 일부의 운영 등을 부탁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정착주민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개발과 시범운영을 거친 아트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고 사회적협동조합 켈쳐마루로 발돋움하게 된다. 켈쳐마루는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문화예술 교육 및 강좌 ▷서적, 전시상품 판매 ▷식재료 산 컨설팅 및 교육 ▷문화체험 교육서비스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출판 사업도 추가해 마을의 이야기 등을 기록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지역 내 어르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마을 이야기를 끄집어내 책으로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라동 내 12개 마을 이야기 기록을 시작으로 도내의 모든 마을을 책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거인의 정원을 인수한 뒤 통합 운영을 통해 더 나은 공연·전시 등을 제공하려고 한다. “정착주민들은 공연·전시 등의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는데 비해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행사가 아니면 귀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마늘·양파·양배추 농가에게 알립니다

→ 하하농법이 해결이다!!

마늘

○ 금년도 마늘 평당 10kg 생산능력이 있어 화제! → 대정읍 하모리

김OO씨는 2,400평에 하하농법으로 재배한 마늘이 24,000kg 생산되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 밀겨름 : 이노페스 + 복비(21-17-17)
- 추 비 : 히토락F + 복비
- 추 대 : 히토락F

※ 이노페스를 사용시 유기질 비료 또는 퇴비, 토양개량제(소석회 또는 생석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파·양배추

○ 표종을 정식전에 하하농법인 브이(V)패스로 침지 또는 침전 후 정식 → 정식후 뿌리가 내리면 브이(V)패스로 엽면시비 해준다.

○ 브이(V)패스 : 500ml 1병 12.5말로 희석해준다

→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 뿌리혹병, 마늘 잎지 썩음병, 감자 시들음병 등등..)

※ 대정읍 신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올 농사도 하하농법으로 하하 웃는 농민과 함께하는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 · P 010-2633-5349